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구축

전주고에 개소식 열어
진안 안천고 등 4곳
회원학교로 참여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전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 위해 전주고등학교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구축, 2일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 위해 전주고등학교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구축, 2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교원 미배치 등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접목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온라인 기반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 능력을 높이고,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및 불균형 해소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을 연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는 학생의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정규 수업시간 내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된다.

개설과목은 경제·화학1·중국어1·심리학·교육학·인공지능 기초 등 6개 과목이며, 회원학교로는 진안 안천고, 무주고, 임실고, 부안 백산고 등 4교다.

회원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 온라인 학습실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플랫폼에 접속해 수업을 듣고, 수업 교사는 거점센터 내의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교실온닷(https://classon.kr)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한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준 전주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미래형 교육체제를 준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올해 도내 96개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로 지정·운영한다.

특히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규모학교의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여건 확보를 위해 교원 및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명품 전북교육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 열자"

서 교육감, 직원조회서

"우리 함께 명품 전북교육을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갑시다."

서거석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직원조회에서 "지난 1월 초 발표한 10대 핵심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 전북교육을 한다계 더 발전시키자"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현장 중심, 속도, 혁신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학교 현장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매일 새로운 눈으로 살피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올해가 특히 중요하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집중력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확실하게 해내자"면서 "우리가 하나 되면 전북교육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2일 군산상일고등학교를 찾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새 학기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가슴 속 열정 불태우길"

서거석 교육감, 군산상일고 찾아 새학기 새출발 응원

서거석 교육감이 2일 군산상일고등학교(교장 임영근)를 찾았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이 일제히 열린 이날 오전 서 교육감은 군산상일고 교문 앞에서 임영근 교장을 비롯한 이 학교 교사들과 함께 등교하는 신입생들을 맞았다.

서 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새 학기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오늘은 군산상업고등학교가 명문 군산상일고로 거듭 태어난 날"이라며 "그 첫 발걸음의 주인공 한 명 한 명을 만나보고 싶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전 교생이 모인 입학식에서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언급하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슴 속 불과 같은 뜨거움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청춘"이라며 "신입생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고 가슴 속 열정을 불태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상일고는 고교야구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일반고로 바뀌면서 얻은 새 이름이다.

일반고 전환은 지난해 7월 군산상고를 찾은 서 교육감이 교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업계고의 어려운 현황을 듣고 학교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성사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직원 인사 발표
초등 교원에 총장 표창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3월 1일자 교직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어교육과에 교육과 연구 역량을 겸비한 인재로 안수진 교수가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새 학기부터 교실영어와 영어교과교육론 강의를 맡게 됐다.

이어 부설초등학교 초등교원 전입·전출, 직원 전보 발령, 학과 조교 신규 임용 및 재임용이 이뤄졌다.

한편, 전주교대는 부설초등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초등 교원에게 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총장표창 수상자와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총장표창 수상자 ▲전주부설초 고영숙 ▲전주부설초 노운 ▲군산부설초 이화영 ▲군산부설초 전지혜 ▲군산부설초 정소희 ▲군산부설초 조성환

◇인사발령 대상자 ▲영어교육과 안수진 조교수 ▲초등교육연구원 김난영 행정주사(팀장) ▲교무처 최도영 행정주사(팀장) ▲산학협력단 강민재 행정주사(팀장) ▲평생·영재교육원 선다빈 행정서기보 ▲교육대학원·교육연수원 장유선 대학회계8급 ▲사회교육과 류별 조교 ▲수학교육과 정광우 조교 ▲영어교육과 이로운 조교

/장은성 기자

곤충 산업화 미래 진단

전북대 곤충연구회, 곤충연구 심포지엄 열어
해충방제 기술 제시 · 산업 활용 연구 방안 발표

전북대학교 곤충학 분야 교수진으로 이뤄진 곤충연구회는 2일 농생대 본관에서 곤충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곤충학 분야 교수진으로 이뤄진 곤충연구회는 2일 농생대 본관에서 곤충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준선 교수는 특정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RNAi(RNA interference, RNA 간섭)를 이용한 해충방제 기술을, 그리고 제놀루션 김우진 실장은 RNAi를 이용한 곤충 질병방제 기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미생물 살충제 개발 분야의 석학인 김재수 교수가 '곤충병원성 미생물과 dsRNA를 이용한 신규 해충방제 기술'이라는 발제를 통해 새로운 해충방제 기술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곤충양잠산업과) 전문 연구자들이 산업곤충의 산업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박관호 박사는 음식물과 부산물을 분해하는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의 산업화 활용 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송정훈 박사는 애완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발제를 통해 곤충과 인간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한 연구로 관심을 끌었다.

김재수 전북대 BK21 사업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RNAi 현상을 해충 및 곤충질병 방제 기술로의 적용 가능성 제시와, 곤충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북대 곤충연구회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 연구와 곤충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곤충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곤충 연구 심포지엄'은 농생물학과, 식물방역학과, 농축산식품융합학과, 식물의학연구센터 주관으로 매년 2회(봄·가을)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 도내 대학들 2023학년도 입학식 잇따라

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이 입학식사를 전하고 있다.

"도전 · 성장에 늘 함께 할 것"

전북대학교

"봄꽃을 닮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취타대 연주가 캠퍼스 곳곳을 돌며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고,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 교수들의 학사행렬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입학식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신입생 대표 200여명,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양 총장은 입학 대상자 학사과정 4,256명, 석사과정 984명, 박사과정 290명 등 총 5,530명에 대한 입학허가를 선언했다.

이어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소창현 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인군 학생이 신입생 대표 선서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대하여 장학증서도 수여했다.

양오봉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서, 글로벌 TOP 100 대학 위상을 확고히 하는 교육·연구·행정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변화가 신입생 여러분의 의미 있는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에 대학이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열정 · 자신감 갖고 도전하길"

호원대학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일 호원 문화체육관에서 강희성 총장 및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호원대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과정별 신입생은 신입학 1,094명, 편입학 202명, 위탁신입학 308명, 위탁편입학 235명으로 총 1,839명이다.

이날 입학식에서 강희성 총장은 2023학년도 입학 대상자 1,839명에 대한 입학허가 선언을 했다.

정우승 학생(간호학과)과 이유리 학생(공연미디어학부)은 신입생 대표로 재학하는 동안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열의와 성심을 다해 면학정진에 힘쓸 것을 선서했다.

이어 자동차기계공학과 송동하 학생 외 118명의 장학생이 인당장학금을, 물리치료학과 노준혁 학생 외 8명이 내신우수장학금을, 간호학과 김민채 외 18명이 성적우수장학금을, K-POP학부 차유진 학생 외 3명이 학과장학금을, 소방·전기융합학과 이중제 학생 외 579명이 국가장학금을, K-POP학부 한효원 외 43명이 다자녀장학금에 대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강희성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호원인이 되길 바란다"며 "목표와 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일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입학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남천현 총장, 오석흥 진천캠퍼스 부총장, 조준모 총동문회장, 단과대학장, 교무위원 등이 참석해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을 응원했다.

이날 신입생을 대표해 최범진(군사학과 1년) 학생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깨끗한 학풍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할 것을 선서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학생들이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총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능동적인 탐구정신과 냉철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우직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천현 총장은 "여러분의 앞날에 한계와 불가능은 없다"며 "자신감을 갖고 차별화 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는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기자